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과 김지향 · 최재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
입니다.

□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저 출생률이 기록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근본이 되는 정책 대상은 ‘대한민국 청년’일 것입니다.

□ 고물가·고금리 시대 일자리·주거·결혼·출산·육아 등은 생애
동안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요소가 아닌 희생으로 점철된
숙제가 되어 버린 지금, 청년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본 건의안은 청년 문제의 기본이 되는 ‘일자리’를 지방의회 차원

에서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지방의회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작동하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 입법, 예산, 민원 등 주민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심의·의결·관철하는 대의기관입니다.
- 지방의회의 청년인턴제도 도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막대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자치법규 의안 심의에 있어 양질의 검토를 수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역 민원 대응에 있어 직접적인 청년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청년 요구가 반영된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해내는 한편,

- 청년의 지방의회 지원 인력화를 통해 정치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